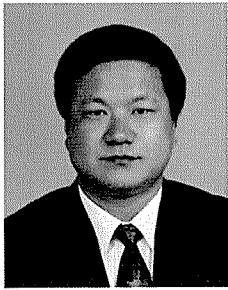


## 문배나무



### 최 명 섭

국립산림과학원 환경생태연구실

- ▶ 과명 : 장미과
- ▶ 학명 : *Pyrus ussuriensis* var. *seoulensis*
- ▶ 일명 : 타이리ん야마なし

식물분류학자들은 새로운 식물을 발견하게 되면 이름을 붙이게 되는데 처음 발견되어 명명되는 식물을 표본목이라 한다. 우리나라에서 지금껏 발견되고 명명되어진 식물체가 수 없이 많을 진데 그 식물체가 보존되고 기록되어진 사례가 많지 않아 식물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안타까움이 크다.

문배나무는 1935년 일본의 식물학자 Nakai에 의해 국립산림과학원 부속 홍릉수목원 내 제 3수목원의 현 위치에서 처음 발견하여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으며 현재까지도 보존이 잘 되고 있다. 1966년 전 서울대 교수이시던 故 이창복 박사님께서 재 명명된 나무로서 학술적 가치가 큰 나무로 인정되어 우리 산림과학원에서는 후계목을 양성하고 아차산등 서울 근교 산지에 복원을 시도한바 있다.

## 1. 생태적 특성

문배나무는 서울 주변의 인가 주변이나 산기슭의 토심이 깊고 비옥한곳에 자생하였으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나무가 훼손되어 찾아보기가 매우 어렵다. 추위에 강하고 음지나 양지를 가리지 않으나 건조한곳에서는 생육이 불량하고 맹아력은 강하고 대기 오염에 대한 적응력은 강한 편이다. 주변에 식재된 향나무, 노간주나무와는 상극이어서 가까이 식재하면 적성병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 2. 형태적 특성

원줄기는 큰 줄기가 곧게 자라며 수피는 흑갈색으로 잘게 갈라지며 어린가지는 갈색이다. 잎은 어긋나며 원형이고 점첨두, 원저로 길이 5~10cm로서 양면에 털이 없고 침상의 톱니가 있으며 잎자루는 길이 2~5cm로 털이



▲ 문배나무



문배나무

없다. 산방화서(繖房花序)로 피는 꽃은 산돌배의 꽃 보다 크며 순백색으로 핀다. 열매는 둥글고 지름 3~5cm로 10월에 황색으로 익는다. 기본종은 산돌배(*Pyrus ussuriensis*)이며, 그 외 유사종으로는 앞 뒷면에 잔털이 있는 것을 털산돌배(var. *pubescens* Nakai), 앞 뒷면 백 위에 면모가 있으며 앞 끝 모양이 타원형, 광타원형 또는 난형인 것을 금강산돌배나무(vsr. *diamantica* Uyeki), 열매가 타원형으로 끝이 좁아진 것을 청실리(var. *ovoidea* Rehder), 어린 가지와 잎자루 및 과병에 털이 있는 것을 남해배(var. *nankaiensis* Nakai), 열매가 지름 4~5cm 로서 햇빛이 닿는 곳에 붉은 빛이 돌고 거치의 길이가 2~3mm인 것을 취양배(var. *acidula*(Nakai) T.Lee)라고 한다.

### 3. 조경수로서의 활용

문배나무의 꽃이 피는 5월에는 주변이 순백색으로 화사하여 꽃을 구경하는 사람의 얼굴까지 백색으로 물들이게 하고 관상적 가치는 은은한 흰꽃과 함께 수형이 우아한 원추형이고 도심의 공원 등에 적합하며 인가 주변의 울타리에 한 두그루 식재하면



▲ 문배나무

봄철에 피는 순백색의 꽃을 감상하고 가을에 익는 열매는 식용이나 약용으로 하거나 술을 담근다.

### 4. 번식법

번식은 가을에 채취한 종자를 노천 매장하였다가 이듬해 봄에 파종한다.

### 5. 그 밖의 용도

한방에서는 산돌배나무의 열매를 이(梨)라 하여 변비나 소갈 등의 치료에 사용하며 뿌리는 이수근(梨樹根)이라 하여 탈장치료에 사용하며 줄기의 껍질은 이목피(梨木皮), 가지를 이지(梨枝), 잎은 이엽(梨葉)이라 하여 버릴 것 하나 없는 중요한 약재 자원이다.

우리나라 특산종인 문배나무는 서울에서 발견되고 서울에서만 자생하는 나무로 도시개발에 의해 거의 멸종되었으나 산림과학원 홍릉수목원에서는 그동안 종 보존을 위해 후계목을 번식하여 왔고 다행스럽게도 홍릉수목원에 모수(母樹)가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종 보존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



▲ 문배나무